

'남북교류 대비 간호교육체계' 국회 토론회

김재경 국회의원 주최-통일간호포럼 주관

통일시대를 대비해 간호통합 체계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남북교류 대비 간호교육체계의 과제와 대안' 주제 국회 토론회가 11월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통일간호포럼이 주관했다. 보건복지부와 통일부가 후원했다.

김재경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통일의 시기에 대비하고, 남북한 보건 의료 현실과 제도의 고찰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통일 대비 남북한 보건 의료 및 간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림 통일간호포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의 기류가 조성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남북한 간호교육체계를 비교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확인하고, 현명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개최식에는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김성찬 국회의원, 김한표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조훈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북한 보건 의료의 전반적 개요 및 발전방향' 기초강연을 한 인

연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은 1997년부터 21년 동안 29번 북한을 방문하면서 파악한 북한 의료체계를 현황을 소개했다.

'통일 대비 간호교육체계 준비' 기초강연을 한 김미영 통일간호포럼 부대표는 남북한 국민들의 건강상태, 간호교육 체계와 면허제도 등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남북교류에 대비해 간호교육체계 부문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부모자녀건강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리셉션

부모자녀건강학회(회장 김 수)는 창립 2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역대 회장단 및 현 임원진,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 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모자녀건강학회가 1998년 창립해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모두 선배님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회원 모두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학회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하영수 초대회장은 축사를 통해 "부모자녀건강연구회로 시작했던 모임이 학회가 되고,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니 초대회장이자 발기인으로서 매우 감격스럽다"면서 "학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임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장, 안영미 한국아동간호학회장이 축사를 했다.

학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연혁이 보고됐다. 학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로 이경혜, 이자혜, 방경숙 전임회장 초청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자연주의 출산과 부모자녀의 건강' 특강을 박지미 메디플라워산부인과의원 간호부장이 진행했다. 축하 케이크 커팅, 건배제가 진행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성주향 전 경남도의원 시조집 발간

"내게 온 사람들은 추억을 사 겁니다/마음이 색깔로 물드는 가을에는/책갈피 인쇄 편지를 거만 꺼내 읽겠지요"(시조 '나무' 중) 성주향 전 경남도의원(간호사)이 시조집 '노티 블로그'를 펴냈다. 자신의 삶의 기억과 내밀한 심정을 토로한 시조 80편이 수록됐다.



시조집은 1부 노티 블로그, 2부 새해 아침, 3부 행복 치료사, 4부 까지 울다, 5부 코스모스 등으로 구성됐다.

1993년 수필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수필집 '남편이 준 속세'를 출간했다. 수필가이자 시조시인으로 활동하면서 2016년에 시조 '까지 울다'로 '시조문학' 작가상을 수상했다. 한국문인협회, 울산수필가협회, 울산 나래문학 동인회원이자, 울산 나래문학 동인회원이자.

성주향 시인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빛나는 보석 하나 지니고 싶었다. 하지만 내 시어엔 아직 불순물이 너무 많다"면서 "시나브로 명든 자국을 더 절삭하여 눈 시린 광택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문학평론가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해설을 통해 "성주향 시인의 시조 세계는 마음을 다해 전해지는 화간의 정서와 우리가 살아

가는 현실에 대한 탐구의 열의를 함께 담아냈다"고 밝혔다.

성주향 시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초대회장을 지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헌신해왔으며, 이 같은 공로로 유재라봉사상을 수상했다.

현재 사회공헌운동단체 '실버브레인건강수호단'에서 노인 두뇌건강 및 치매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논뜨면 리모컨이 하루를 열어준다/지구촌 파노라마 그 속을 들여다보고/웃다가 울먹이다가 마음 문을 닫는다" (시조 '독거노인' 중)

(책만드는집 / 값 1만원)

최수정 기자 sjchoi@

박성덕 재미간호사, 경북간호사회에 장학금 쾌척

재미간호사인 박성덕 전 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장이 경북간호사회에 간호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쾌척했다.

'박성덕 장학금' 수여식은 한국에 온 박성덕 간호사가 지난 10월 8일 경북간호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간호대학생 3명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이 전달됐다.

박성덕 간호사는 경북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1974년 도미했다. 시카고한인회 부회장, 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장을 지냈다.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시카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인물로 높이 인



정받아왔다. 미국 스트라스모어 인명사전 (Strathmore Who's Who) 과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캠브리지 인명사전 (Cambridge Who's Who)에 등재됐다. '아시아 명예의 전당' 사회봉사상(간호부문)을 받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고문회 회장 선출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는 정기총회를 11월 3일 열고 제7대 회장으로 고문회 초대 부총장(간호학과 교수)을 선임했다. 임기는 2019년 1월부터 2년이다.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비롯해 인문학, 사회과학자들이 모여 다학제적인 접근과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의 커뮤니케이션 개선에 기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6년 창립됐다. 회장이 간호학 분야에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기총회에 앞서 학술대회가 '환자중심 의사소통과 환자경험' 주제



로 열렸다. 환자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고 환자의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는 환자중심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진행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

<1면서 계속>

간호계는 "무엇보다 현재 각 간호대학이 실습기재가 필수목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체모형과 장비를 100%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장비와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간호교육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간호대학 교수들은 시뮬레이션 실습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에 1억원이 넘는 외국산 고가장비를 추가로 마련해주는 것보다 모든 간호대학에 표준화된 시나리오 개발과 이를 운영할 인력, 시뮬레이션 교육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더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보건복지부는 간호

실습교육에 대한 간호교육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층적인 고민 없이 일부 대학을 통한 고가의 장비구입 및 시설보완 등을 통해 간호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호실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간호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초 장비와 인원 등 기본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에서 임상실습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50%, 지

방에 50% 분포되어 있는 반면, 간호대학생 정원만 수도권에 20%, 지방에 80% 배치되어 있어 약 4만 여명의 학생이 임상실습을 위해 전국 각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타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라는 것은 고시원 등 숙박으로 인한 안전문제의 교통비, 식비 등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타 대학 실습기관 이용으로 인한 학습의욕 저하와 실습 중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한 불명확한 책임소재 등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섯째, 대학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간호인력까지 교육하는 것은 기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과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짚었다.

간호계는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8개 권역별 센터에 실습실을 갖추고, 병원 간호인력 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직무교육, 실기표준화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소관인 국공립대에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확대·설치하고, 인근 병원의 간호인력까지 교육하게 하겠다는 것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고유의 사업과 중복

30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국가 면허시험 → **간호사 국가고시** → **위생사** → **보건교사 임용고시**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대방열림고시학원
바로가기 QR코드

NAVER 진통카페
바로가기 QR코드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헤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보건교사 특강

2019.1.9 (수) 개강

노성인
기초간호과학
응급간호
학교성인질환
노인간호

오정화
아동간호
모성간호

김희영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3인의 전공·전문교수진

- 간호직공무원, 간호사국가고시에서 검증완료된 전문교수진
- 최신 경향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준비
- 10년 이상의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바로가기 QR코드